



# 가톨릭 안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제300호 2024년 9월 29일(나해) 연중 제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 Wikipedia®, Creative Commons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창세 1,31)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무산쇠족제비 (*Mustela nivalis*)

제1독서 민수기 11,25-29

화답송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야고보서 5,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9,38-43.45.47-48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 외유내강(外柔內剛)



풍양 농촌 선교 본당 주임  
김유강 시몬 신부

저는 사람의 생김새 모양이나 형태는 잘 기억하지만, 사람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 수시로 여러 번 이름을 묻곤 하죠. 한번 들은 이름을 까먹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외울 때 그 사람의 특징이나 별명, 애칭으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휴대폰에 상대방 이름을 저장할 때에도 그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별칭 등을 함께 사용하여 휴대폰에 저장하곤 하죠. 저와 같이 특별히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리라 생각하여, 상대방에게 저의 이름을 소개할 때 자주 쓰는 말로, 외유내강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물론 제 이름의 한자와는 다르지만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한 태도를 보이거나 마음속은 단단하고 굳센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뜻하는 사자성어로 외유내강(外柔內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 겉으로는 부드럽게 상대방을 대하면서도 속은 강한 의지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이 말은 오늘 복음의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스승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을 막았다는 요한의 옹졸함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막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마르 9,40)라며 외유(外柔)의 태도를 보이십니다.

오늘 복음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태 19,14)라며 어린이들에게도 외유(外柔)의 태도를 보이시기도 하셨고,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외유(外柔)의 태도를 보여 주셨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서는 늘 유(柔) 하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과

실제로 죄를 짓게 하는 신체 일부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강(內剛)의 태도를 보이십니다. 그것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매우 단호하고 엄격한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니,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손이 죄를 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죄를 짓게 하면 그 발을 잘라버리며, 눈이 죄를 짓게 하면 그 눈을 빼 던져 버려라”(마르 9,43~47)라는 말씀은 실로 엄청난 요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우리 모두 벌써 장애인들이 되어 있어야 하겠네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그만큼의 굳은 결단력을 가지고 죄지을 기회를 피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손을 움직인 마음이 문제이지 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소한 죄들과 타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면서 죄의 유혹에 쉽게 쉽게 넘어가 버리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악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놓아 죄 중의 상태를 익숙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고, 하느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주일 미사를 한번 빠지기는 쉽지 않으나, 한번 빠지면 2번은 쉬워지고, 그러다 보면 냉담의 길로 쉽게 넘어가기 마련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죄악을 피할 수 있는 든든하고 강한 내강(內剛)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더욱 하느님과 가까이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사랑의 실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입니다.

### 지켜주세요 <무산쇠족제비>

### 표지 사진 설명



한반도에 서식하는 포유류 중 가장 작은 종으로 알려진 무산쇠족제비는 몸길이가 12~16cm, 몸무게는 70g 정도입니다. 꼬리가 전체길이의 30%가량 차지합니다.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길게 뻗은 긴 체형을 가졌으며 꼬리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형태입니다. 털색은 일반적으로 어두운 적갈색을 띠고 턱부터 배와 뒷다리 안쪽의 몸 아랫면은 흰색입니다. 한반도에서는 함경북도 무산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놀라운 사냥꾼인 무산쇠족제비는 ‘정보 부족 종’으로 분류되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크기가 작고 빠르다 보니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동·식물에게 인위적인 간섭은 위협이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도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무산쇠족제비를 보며 생태계보호에도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중용의 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의성본당- 정규석 프란치스코

※ 2024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찬미반오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의 일환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에 대해 다룹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참고하여 목상글을 담습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노달리타스의 차원을 강조함으로써, 교회는 역사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 곧 ‘이주’의 길을 걸어 나가는 하느님 백성으로서 나그네라는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교회 헌장 49항 참조).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는 탈출기의 성경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종살이에서 자유에 이르기까지의 그 긴 여정은 주님과 궁극적 만남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의 여정을 예표합니다.

모든 시대에 그러하였듯이 우리 시대의 이주민들 안에서도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하느님 백성의 살아있는 표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탈출에서 드러나는 이미지와 이주민의 이미지, 이 둘은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주민들은 자주 억압, 학대, 불안, 차별, 발전 기회의 부족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그러하였듯이 이주민들도 길 위에서 많은 장애물에 맞닥뜨립니다. 그들은 목마름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역경과 질병으로 녹초가 되며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탈출기를 비롯하여 모든 탈출에 바탕이 되는 사실은, 하느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당신 백성과 당신의 모든 자녀가 가는 길을 앞장서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점입니다. 당신 백성 가운데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은 구원 역사의 확실성입니다. 이집트를 떠나온 백성에게 이러한 하느님의 현존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탈출 13,21 참조), 만남의 천막(탈출 33,7 참조), 구리 뱀이 달린 기둥(민수 21,8-9 참조), 만나와 물(탈출 16—17장 참조) 등이 있습니다.

많은 이주민이 하느님을 그들의 길동무, 구원의 인도자이자 구원의 닻으로 경험합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에 하느님께 스스로를 내어 맡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느님을 찾습니다. 하느님 덕분에 그들이 가는 길마다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그들의 희망을 둡니다. 사막, 강, 바다, 모든 대륙의 국경을 건너는 이주민들의 여정에 얼마나 많은 성경, 복음서, 기도서, 묵주 기도가 함께합니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과 함께 당신 백성 안에서 걸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역사를 통한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장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는 의미에서 당신 백성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강생의 신비가 널리 퍼져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주민과의 만남은 “그리스도와 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이며 헐벗고 병들며 감옥에 갇혀, 만남과 도움을 청하려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오 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희는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였다”(마태 25,35).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은 주님을 만나 뵈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난한 이들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만나 뵈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3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교황 담화, 2019.11.17.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주민과 난민을 위하여 봉헌된 오늘, 존엄한 삶의 여건을 찾아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이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도 그들의 여정에 함께하여 ‘시노드 정신’으로 함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교황 담화



<상주 한마음유치원>에서 탄소발자국 줄이기 “지구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1)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 알아보면서 물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2) 우리 주변의 물을 아껴 쓰는 방법을 생각해 많이 버려지는 페트병을 ‘빗물저금통’으로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 3) 푸른반 친구들이 제작한 ‘빗물저금통’은 텃밭활동 시 작물에 물을 주거나 화단에 물을 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탄소발자국 줄이기 함께 지켜요.'에서는 탄소발자국 줄이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2024년에는 매주 <안동교구 소속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 환경 교육 이야기를 전합니다."

## 가톨릭농민회 · 우리농 생활공동체 사목방문

9월 12일(목)에 교구청에서 <가톨릭농민회 · 우리농 생활 공동체 사목방문>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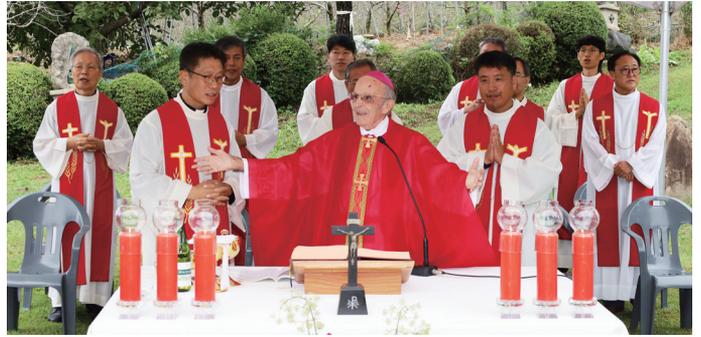
## 평협 순교자 현양 성가 발표회

9월 21일(토)에 가톨릭상지대학교에서 <평협 순교자 현양 성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 순교자 현양 미사

9월 22일(주일)에 마원 성지에서 <순교자 현양 미사>가 있었습니다.



**안동신협**  
 가톨릭과 함께하는 서민은행  
 정기예금 3.4% (1년)  
 안동시 태사2길 28(안동의료원앞)  
 T.054-859-1710

**영주 독일 보청기**  
 노인성 난청 전문  
 김 성 문 (스테파노)  
 영주시 구성로 333  
 (신호동 오거리 성누가병원 옆)  
 T.054-635-2498, 010-3693-7684

**서울 프라임 치과**  
 임플란트 · 교정 · 보철치료 · 치주질환  
 원장 김재권 미카엘  
 안동시 옥동사거리  
 T.054-859-2879

**서민 식육 식당**  
 등심, 갈비, 차돌박이, 양지, 불고기, 삼겹살, 목살  
 점심특선: 주물럭, 불고기, 육회 비빔밥, 곰탕  
 전국 택배 가능  
 이택규 (마티아)  
 예천군 호명면 양지3길 21 (호명초 앞)  
 T.051-655-4994, 010-9494-4074

**문경새재 임격정가든**  
 40년 전통 손두부전문농이버섯 한우두부전골  
 홍창식 안젤로 박순분 안젤라  
 문경읍 새재로 870번지  
 T.054-571-2285, 054-572-0027

**안동 우리농**  
[www.andongfood.net](http://www.andongfood.net)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며 모두를 살리는  
 생명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T.054-843-0128

**(주)이우텍**  
 디지털문화 콘텐츠 전문기업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 · 유지보수  
 홈페이지: [www.iwootec.com](http://www.iwootec.com)  
 T.054-843-5700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  
다미안 의원**  
 피부질환, 레이저콜리닉, 보톡스  
 (수익금은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영주시 봉화로 2(상망동)  
 T.054-633-6762



**성진사우나**

대표 김용숙 스텔라  
송우근 바오로  
문경시 중앙로 212  
T.054-553-0059

**아름다운얼굴피부과의원**

피부질환, 피부미용, 보톡스, 필러,  
레이저, 여드름, 아토피, 탈모, 비만,  
검버섯, 점, 제모  
피부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중원 요셉  
T. 054-553-2079

**대게 좋은날**

대게, 회 식당 및 숙박운영  
대게, 킹크랩, 랍스타, 짬&코스 요리, 회, 물회  
다양한 메뉴, 맛있고 입이 즐거운 여행! 숙박까지  
이복도 요셉, 김경숙 마리아  
010-2520-1926  
영덕군 강구면 강구대게길 37  
T.054-732-8357

**안동MBC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한국인 두봉 주교"

10월 17일(목) 저녁 9시

**엘리마리**

빙수 전문점  
(콩고물, 카스테라, 망고, 초코, 딸기빙수)  
김유경 엘리사벳 010-2831-8273  
매봉 4길 14 (대동타운 아파트 앞)

**로이젠 안동점**

신사정장, 자켓, 콤비, 셔츠, 구두외  
(빅사이즈 상의 140, 하의 52인치)  
안동 홈플러스 건너편  
서정희 마리스텔라  
T.054-855-5949

**+ 교구 봉안 경당(납골당)**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풍로 983-41  
분양 및 예약, 묘지 이장 소개  
위령미사- 매주 토요일 15시  
T.054-655-1781, F.054-655-1782

방영일이 10월 3일에서  
1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구장 동정**



- 10월 2일 학교법인 이사회
- 10월 3일 사목방문  
-여성연합회, 평협
- 10월 4일 파이프오르간 축복식  
(갈전 마티아)
- 10월 5일 꾸르실로 제18차  
교구 울뜨레야

**축하합니다**

**영명축일**

10월 4일 이성길 전장호 프란치스코 신부

**기억합니다**

10월 3일 박로제 로제리오  
신부 41주기



**교 구**

**갈전마티아 성당 파이프 오르간 축복식**

일 시: 10. 4(금)

일 정:

- 1) 인수식(17:00~ 17:40)  
파이프 오르간 제작자: 미셸 주린(프랑스)
- 2) 축복식(19:00~ 19:40)  
주 제: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3) 준공 연주회(19:40~ 20:30)  
오르가니스트: 박수원

**수슈페 도미네와 함께하는 성시간**

일 시: 10. 4(금) 20:00/ 11. 8(금) 20:00

장 소: 예천 본당

대 상: 함께 하실 분은 누구나

**제 단 체**

**24 교구 성령치유기도회(성령쇄신대회)**

일 시: 9. 29(주일) 15:00~ 18:30

장 소: 서문동 본당

미 사: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및 협력사제단

**제18차 안동교구 울뜨레야 개최**

일 시: 10. 5(토) 09:20~ 15:00

장 소: 가톨릭상지대 대강당(소피아관)

참석 대상: 안동교구 꾸르실리스따

**생태환경위원회 '생태특강'**

일 시: 10. 5(토) 10:00~ 12:00

장 소: 농은 수련원

강 사: 김해동 아우구스티노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 장)

대 상: 선착순 80명(함께 하실 분 누구나)

주 제: '국제기구, 기후위기 대응에 시민의  
역할을 호소하다'

신청 기간: 9. 9(월)~ 9. 23(월)

신청 문의: 김경태 다투 010-6510-1552

**10월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 시: 10. 5(토) 10:30

장 소: 교구청 강당

**생태환경위원회 주최**

**'찬미받으소서'의 날' 행사**

일 시: 10. 26(토) 09:00~ 13:00

장 소: 농은 수련원

대 상: 안동교구 전신자(주일학교 포함)

신청 기간: 9. 1(주일)~ 9. 30(월)

신청 문의: 010-6510-1552,

dateokr@naver.com

FAX: 636-9103

내 용: 주일학교 생태환경 ○× 퀴즈대회,  
삼베·황마·마 수세미 만들기,  
고체 샴푸바 만들기, 수세미  
재배법과 만드는 과정 보여주기,  
천연세제·천연비누 만들기,  
폐현수막으로 시장 바구니 만들기,  
헌옷 업사이클링, 알뜰매장,  
설탕과 색소(식품첨가물) 알아보기,  
탄소 중립 포인트 적립 안내 등

**수 도 회 · 피 정**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 개관기념**

**가을 문화 피정**

1차: 9. 27(금) 15:00~ 28(토) 13:00

-승효상 건축가

2차: 11. 8(금) 15:00~ 9(토) 13:00

-공지영 작가

3차: 11. 15(금) 15:00~ 16(토) 13:00

-김탁환 작가

장 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참가비: 9만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 의: 010-6791-0071(문자)

**엠마오 피정**

주 제: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창세1,31)

일 시: 10. 5(토)~ 6(주일)

장 소: 안동 본원(송현동)

대 상: 40세 이하 미혼여성

회 비: 3만원

신청 마감: 9. 30(월)

문 의: 010-8852-9817 (황수산나 수녀)

**1박 2일 치유피정(무료)**

일 시: 매 월 첫째주 금요일 18:00~(토)17:00

강 사: 김완식 요셉 외 유명강사

진 행: 고영민 안드레아 (찬양팀)

장 소: 초정성령회관

문 의: 043-213-9103, 010-5482-6744

**단기 선교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온라인)**

일 시: 11. 4(월)~ 14(목) 19:00~ 21:00

대 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진 행: 실시간 온라인 교육

비 용: 10만원

문 의: 02-3673-2528, 한국외방선교회 선교센터

**교 육**

**가톨릭상지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1차 모집: 9. 9(월)~ 10. 2(화)

7개 학부, 15개 모집학과

주말반 학과 모집: 사회복지과, 전기과,  
전산세무회계과,  
드론운용정비과

야간 학과 모집: 경영과, 사회복지과,  
외식창업조리과,  
하이브리드자동차과,  
노인건강지도과

입학문의: 851-3021 <https://www.csj.ac.kr>

**식품가공연구개발(밀키트) 무료 교육**

일정: 10. 5(토), 19(토)/ 11. 3(일), 10(일)  
(각 2일 10시간)

시 간: 09:00~ 14:30

내 용: 식품 개발 개요 및 사례,  
HMR-밀키트 실습 및 포장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노인상담기법 무료 교육**

일 정: 11. 23(토), 12. 7(토) (총 2일 12시간)

시 간: 09:00~ 17:30, 09:00~ 13:00

내 용: 노인심리지원, 상담기법 스킬 향상 등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2025년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남녀공학, 전국 모집(남녀 기숙사 운영)

학 과: 보건간호과, 경영금융서비스과,  
카페경영과, 부사관과

특별전형 원서접수: 10. 14(월)~ 10. 18(금)

일반전형 원서접수: 11. 6(수)~ 11. 12(화)

입학 문의: 054-541-3082

경북 상주시 함창읍 소재(함창성당 옆)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가톨릭 고등학교

**"만원의 행복"(농은수련원 위령성월 피정)**

일 시: 11. 2(토) 10:00~ 16:00

주 제: 이제는제 눈이 당신을 보았습니다(요42)

대 상: 누구나

참가비: 1만원

신 청: 10. 20(주일)까지 054-652-0591